

美 10년물 국채금리 4.3%대 유지 증권사, 단기·적극 투자 ETN 발행

美 ‘고용쇼크’에도 국채시장 유지
NH투자증권, ETN 2종 신규상장
메리츠증권, 美 TIPS 추종 상품 운용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까지 빠르게 상승하자, 국내 증권사들이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을 출시하며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3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3bp(1bp=0.01%포인트(%p)) 하락한 4.363%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형 허리케인 ‘헬린’이 미 대륙을 강타하며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약 4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하는 ‘고용 쇼크’를 겪었으나, 국채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4.3%대를 유지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지난 9월 16일 3.618%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급증하는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겨냥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N2 레버리지 국채 10년 ETN’, ‘N2 레버리지 국채 30년 ETN’, 총 2종의 상장지수증권(ETN)을 신규 상장했다고 30일 밝혔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ETN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

NH투자증권의 경우는 ‘N2 레버리지 국채 10년 ETN’을 발행해 1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한다.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수익률의 2배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상품이다. NH투자증권 측은 “국채 10년물 대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대신, 장기금리 하락 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채 30년물에 기반하는 ‘N2 레버리지 국채 30년 ETN’까지 내놔다.

메리츠증권은 국내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최초로 미국 물가연동국채(TIPS)를 각각 추종하는 ETN을 상장해 운용하고 있다. ‘메리츠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ETN(H)’과 ‘메리츠 미국 레버리지 인플레이션 국채 ETN(H)’

은 미국 물가연동국채인 TIPS 3종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환헤지를 실시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부분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나 ETN과 다르다.

상장된 ETN은 증권사 상관없이 주식 거래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며, 주당 가격은 4종 모두 약 1만원 내외로 소액투자까지 할 수 있어 투자자로서는 투자 접근도가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N 상품이 금리 인하기에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갑자기 틀거나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되면 수익률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임원 ‘자사주 매입’ 랠리에도 삼성전자 주가 부진 ‘여전’

지난달 임원 17명, 3.3만주 매입
4분기 중 ‘HBM3E’ 판매 확대 전망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목표가 ↓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전자’ 턱밑에서 등락중인 가운데, 삼성전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전자 임원 17명은 자사주 총 3만 3318주를 매입했다. 지난달에만 삼성전자 임원들이 매입한 자사주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하고, 올해 매입한 자사주 금액은 총 140억원에 육박한다.

가장 많은 자사주를 매입한 임원은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사장이자 노 사장은 지난달 11일 주당 6만원에 보통주 5000주(총 3억원)를 매입했다. 노 사장은 올해 3월에 5000주, 9월에 5000주를 매입해 총 2만 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로 해석돼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9월 5일 6만 9000원을 기록하며 7만원선이 깨졌고 지난 10월 15일 이후로는 줄곧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3분기 실적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8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7.37% 증가했다고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삼성전자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전 분기 대비 12.1% 감소한 수치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이번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컨센서스) 10조 2932억원을 10.8% 하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은 전 분기 영업이익(6조 4500억원)보다 40.2% 감소하며 3조 8600억원에 그쳤다.

다만,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3E의 주요 고객사 품질 검증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확보했다고 강조하며,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는 임원들의 자사주 매수 랠리와 HBM3E 공급 발표에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추는 분위기다.

▲다올투자증권(11만원→9만 3000원) ▲한화투자증권(9만 5000원→9만원) ▲한국투자증권(9만 6000원→8만 3000원) ▲대신증권(10만원→8만 5000원) ▲BNK투자증권(8만 1000원→7만 6000원) 등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HBM3E 웨데스트가 유의미하게 진전됐다는 건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HBM3E 12단이 아닌 8단일 가능성이 크며, 삼성전자의 HBM이 고객사의 하이엔드 제품에 탑재되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 거래대금 1.9兆 돌파 안전자산 선호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 대선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올해 국내 금 거래대금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금 거래대금은 1조 963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1조 1286억원)을 74%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232억원으로 1월 대비 344%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187kg으로 지난 1월 대비 211% 늘었다.

거래소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가시화 등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힘입어 거래소 금 시장에서 금 1kg 종목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g당 12만 7590원으로 연초(8만 6940원) 대비 47% 급등했다.

올해 들어 투자자별 금 거래 비중은 개인이 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관(37%), 실물사업자(19%) 순이었다.

개인투자자가 금 시장 회원인 13개 증권사에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해 111만개에서 올해 120만개까지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금 시장을 통해 금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원관희 기자



코스피가 전 거래일(2556.15)보다 13.79포인트(0.54%) 하락한 2542.36에 장을 마감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43.06)보다 14.01포인트(1.89%) 내린 729.05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9.9원)보다 0.5원 떨어진 1379.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금주 국내증시, 美 대선 등에 변동성 클 듯

내일 美 대선, 6일~7일 FOMC 결과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58% 하락한 2542.36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주 동안 개인과 기관은 각각 8153억원과 669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인 1조 479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번 주는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선과 6~7일 FOMC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벤트 이후 주식시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고금리 환경 지속, 미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 인공

지능(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 재부각 등을 증시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AI 수익성 우려와 고금리 지속,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와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 등 정책 이슈와 관련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가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후, 추가 경제 지표와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3분기 실적 ‘양호’… 수주·재무구조 등 개선

metro 관심종목 GS건설

전년비 매출 0.1%, 영업이익 36.2% ↑
신규수주 133.2% 급증… 부채비율은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업 전반의 부진 속에서도 GS건설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으로 인해 GS건설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GS건설의 주가는 2.84% 하락했다. 9월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이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GS건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3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818억원으로 36.2% 증가했다. 특히 신규수주가 4조 6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2% 급증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

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GS건설의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3분기 부채비율은 238.8%로, 직전 분기 말 262.5%에서 23.7%포인트 하락했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수주와 실적, 재무구조 등 여러 부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GS건설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철근 누락 사태를 극복하면서 이익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보수적 원가 현실화 이후 3분기 연속 91%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원가율은 실적 개선의 방향성이 단순히 일회성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GS건설의 주가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와 자회사 매각, 입주 증가로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만 남았다”며 “최근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